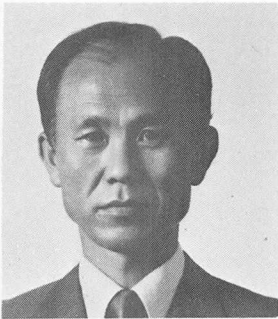


# 협회소식

## 본회 전무에 노영한씨 영입



노영한 전무

본회는 지난 5월 16일 공식중인 한백용 전 무이사 후임에 노영한씨(50세, 전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를 영입, 전무로 발령했다.

신임 노영한 전무는 청주 출생으로 61년 충북대 축산학과를 졸업, 전라북도 중축장과 경기도 중축장에서 근무한 후 대한양계협회에서 22년간 봉직하는 등 줄곧 축산업계에서 근무해 왔다.

박식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를 고루 겸비한 신임 노영한 전무는 축산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해박한 지식을 인정받아 왔다.

흰칠한 키에 치밀한 성격을 보유한 노영한 전무는 「인화」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매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평이다.

또한 노영한 전무는 요즈음 보기 드물게 매일 조석으로 연로하신 부친(83세)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는 효자라고 주위 사람들이 전한다.

부인 이화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

고 있는 노영한 전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노영한 전무는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찾아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본회 자조금제도 실시 동의서 각 지부에 배포

'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육류 소비가 확대되면서 가축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양돈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생산공급 과정에서 돼지고기의 생산·유통·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양돈인은 스스로 양돈산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아래 자조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추진해 왔다.

본회는 이와같은 자조금제도 실시여건 성숙을 위해 지난 4월 2일 임원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자조금제도 실시 동의서를 각 지부 및 양돈인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의, 5월 2일 자조금제도 실시 동의서와 취지문 2만4천부를 제작, 각 지부에 배포하였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취지문에서 「양돈산업의 주인은 강한 조직력과 공동활동을 통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주인되는 유일한 길이라」 하고, 「자조금 제도 실시 달성을 위해 동의서를 배포하니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는 우선 제1단계로 6월 30일까지 돼지 사육두수 100두 이상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그후 제2단계로 8월 30일까지 50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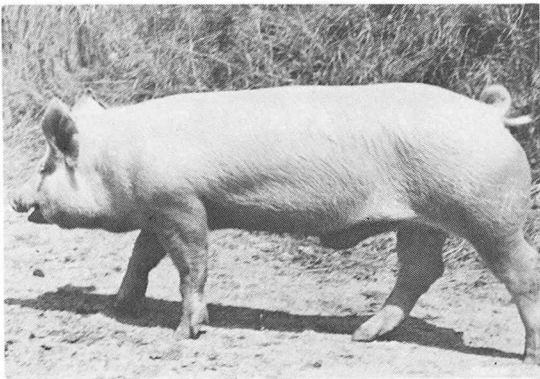
양돈농가에게 동의서를 받아 8월 말까지 총 2만여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본회는 각 지부에 대해 ▷각 지부별 회원 1인당 인근 양돈농가 10명의 동의서 취합 ▷지역별 행사 개최시 동의서 취합 ▷지부에서 취합하여 도협의회 경유 본회 제출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 홍보와 회원배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본회는 자조금제도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정부와 국회에 자조금제도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다.

## 성립축산 출품 대요크셔 챔피언 5백만원에 낙찰

제45차 검정돈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 기록



제45차 검정돈 경매가 지난 5월 20일 이전에 소개한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있었다.

이번 경매에는 총 59두가 상장될 예정이었으나 58두만 상장 57두가 경매에 낙찰되고 1두는 유찰되었다.

상장된 검정돈은 햄프셔 2두, 듀록 14두, 대요크셔 25두, 랜드레이스 16두로 평균 능력은 일당증체량 886g, 사료요구율 2.68, 등지방두께 1.58, 선발지수 182이었다.

이날 경매에서 선발지수 241점의 성립축산(대표: 홍성태) 출품 대요크셔 챔피언이 검정소 경매 사상 최고가인 500만원(이전 최고가 360만원. 1986, 7, 제23차 경매)에 경북 군위군에 위치한 상록원(대표: 정한수)에 낙찰되었다.

성립축산의 대요크셔(선발지수 241점)를 구입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상록원 농장의 정한수씨는 본회 회원으로서 우수종돈의 구입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검정소의 우수돈을 지금까지 24두 구입해 간 검정소 단골고객이다.

그리고 정한수씨는 계속 검정소의 검정돈을 이용, 종돈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매의 평균 낙찰가격은 79만 3천1백원으로 지난달보다 19만원 정도 높았다.

## 본회 북미 연수단 파견

6월 9일부터 24일까지 World Pork Expo등 참관

본회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5박 16일 동안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북미 연수단을 파견한다.

본회 회원 9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연수기간 중에 미국 아이오아 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세계양돈진흥전람회(World Pork Expo)와 미국, 캐나다 양돈산업의 생산·유통·가공·소비현장 및 생산단체와 관련기관의 활동상황 등을 돌아 볼 예정이다.

또한 연수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양돈협회를 방문하고 알버타주 양돈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주요방문처는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학, 미국양돈협회, 전미중돈등록협회, 선물거래시장이며 카나다는 온타리오주 양돈협회와 알버타주 양돈협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미연수단의 단장은 최상백 부회장이 맡고, 그 외 박수원 서울지부장, 박선안 안성지부장, 우봉권 전 울산·울주 지부장, 이평규 울산·울주지부 회원과 서울지부의 나일규, 이원섭, 김용규, 황기환 회원으로 총 9명이다.

### 대외활동실행위원회 명칭을 양돈산업정책 위원회로 변경



본회는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처하고 양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외활동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외활동 실행위원회에서는 정화진 본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 동안 갈망하였던 제반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및 정책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향후 대정부와 대국회 및 관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대외활동 방향을 제조정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본회가 건의

했던 양돈업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전환·육성하는 등 8개항의 양돈정책 건의사항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오는 25일경 2차 모임을 갖고 축산법 개정 추진을 위해 대규모 양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본회는 「대외활동실행위원회」를 「양돈산업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기로 했다.

양돈산업 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정화진(본회 부회장)

▶위원: 최상백(본회 부회장), 이명복(경기도 협의회장), 기정도(전남도협의회장), 정영찬(이사), 김원호(인천지부장), 문승현(서산지부장)

### 본회 제2차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 양돈회관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조진형, 이인형, 최상백, 정화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양돈정책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실행위원회 구성내역 ▷자조금제도 실시 여건 성숙을 위한 동의서 취합계획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기술강습회 개최계획 ▷북미연수단 파견계획 ▷대만 양돈정책조사 연구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편, 회장단회의는 양돈업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 경영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축산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및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축산부문의 자조금제도 실시 건의 ▷축산법 개정 건의 ▷축산물 도매시장의 도축부산물 판매제도 개선 건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 완화 건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건의 ▷돼지 박피

의 전국적 실시문제 등을 협의했다.

### 충남도협의회장에 이상구씨 선출



이  
상  
구  
협  
의  
회  
장

충남도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온양 청주여관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곽용승 협의회장 후임에 이상구씨를 새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이상구 협의회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산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협의회는 최근의 양돈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영동지부장에 배상수씨 선출



배  
상  
수  
영  
동  
지  
부  
장

충북 영동지부는 최근 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서정철 지부장 후임에 배상수씨(44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구성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지 부 장 : 배상수
- ▷부지부장 : 양노석, 유황조
- ▷총 무 : 장경진
- ▷감 사 : 백의구

### 울산·울주지부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춘계대강습회 성료



울산·울주지부(지부장 : 성정표)는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울주군 언양면 목화예식장에서 회원 및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춘계대강습회」를 가졌다.

이날 춘계대강습회에서 박영인 회장(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은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생산자 단체의 역할, 신현국 계장(환경청 생활폐기물과)은 축산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박영인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술적·문화적·경제적으로 모든 분야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세우되 형식적인 대응책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공급안정, 수요촉진, 가격안정

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 단체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업종별 생산자들의 단결이 급선무로 대두되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신현국 회장은 「전문설계업체에 용역을 주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중에 있다면서 곧 확정되면 생산자 단체와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양축가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바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도 기준에 적합하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시설은 축산폐수처리 시공업체에 위탁해 설치해도 되고 양축농가에서 직접 시공해도 된다」고 했다.

### 충남북지부장회의 개최

본회 충남북지부장단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유성 경화장 호텔에서 김철수 도협의회장 주재로 충남북지부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충남북지부장회의에서는 ▷돈콜레라 교육에 대비한 지부별 준비 및 협조 ▷지부운영 활성화 방안 ▷회비 및 홍보분담금 거출 방안과 제2검정소 설립에 따른 배정금 거출에 관한 사항 ▷중앙회에 설치된 「양돈산업 정책위원회」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축산물 도매시장의 도축부산물 판매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중앙회에 설치된 「양돈산업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

고, 양돈업등록제도 폐지와 허가상한선을 종돈과 수출, 계열화 사업을 포함하여 총두수를 5천두까지로 하는 법제화 추진을 건의형식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각 지부장들이 지부활동 상황이 미약한 지부에 대하여 조직활성화 방안 및 회원배가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 춘천·춘성지부 월례회의 개최

춘천·춘성지부(지부장 : 김해수)는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30분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주요안건으로 다른 사항은 지정 사료업체 외 다른 사료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제품구매 회원을 적극 설득하여 동참토록 임원진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일부 약품을 제약회사 및 도매사 직거래를 통해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을 유치·개설하여 수수료 4~10%를 지부운영비로 충당하고, 바쿠키(폐수 수거차) 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회 사업증 자조금제도의 법제화 여건조성과 제2검정소설립 기금에 관한 자금 모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협 회 단 신

### 본회 인사이동

본회는 지난 5월 6일자로 각 부서의 체질개선과 조직활성화 및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부장급을 인사이동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부장 : 김국진(전 홍보부장)



- ▶ 홍보부장 : 정봉수(전 총무부장)
- ▶ 총무부장 겸 한국양돈진흥사업회 사업부장 : 고영(전 한국양돈진흥사업회 사업부장)

부로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88-7  
 전화번호 : (0434) 33-2616

### 충청북도 진천지부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진천지부(지부장 : 서완택)는 지난 5월 1일

### 영주·영풍지부 신규직원 채용

영주·영풍지부(지부장 : 남창수)는 영주 영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신창양(24세)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 “협회가입을 축하합니다”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일동

- 수원지부 : 심언봉, 안기대
- 양주지부 : 한종열, 고태억, 민병렬, 권선찬, 한성무, 전갑열
- 이천여주지부 : 이형선
- 강원도영동지부 : 김정수
- 당진지부 : 이기홍
- 서천지부 : 이명복
- 양산지부 : 신건철, 홍기형, 이상웅, 이상철, 김경복, 정병환, 권종태, 김형근, 차성철, 전병구, 정지영, 서명재, 김종성

## 독자투고안내

「월간양돈」지는 양돈인 여러분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와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실패담·임상수기·지회소식은 물론 시, 소설, 수필, 풍토 등을 보내주시면 성심껏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입니다. 공식적인 원고청탁이 없어서 원고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양축가를 위한 양돈전문지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특히, 「월간양돈」지 제작에 조언하고 싶은 사항이나 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 보내실 곳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양돈회관 4층)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전화: 553-3942~7